

■광주·전남 민선6기 3년 성과와 과제

주목! 이사람



김갑섭 전 남지사 권한대행은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에서 국회예산확보 활동을 벌인다.



장만채 전 남도교육감은 23일 오전 10시 담양에서 개최되는 '제3회 호남총의사의 날 추모행사'에 참석한다.

도의회, 영산강 수질해법 모색 창녕 함안보·낙동강 독방문

전남도의회가 하굿둑 개방 등 영산강 수질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녹조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경남 창녕 함안보와 낙동강 하굿둑을 방문, 비슷한 현상에 처한 영산강의 수질 오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낙동강 줄기는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이른 더위로 녹조가 크게 퍼져 정부차원에서 수질개선에 나섰다. 영산강도 지난 12일부터 조류규제 '관심' 단계가 발령되는 등 녹조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시와 수자원공사측이 제시한 녹조 예방책과 하굿둑 개방과 관련한 문제점을 듣고 낙동강과 영산강 수질을 비교·분석하는 등 수질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또 녹조류 펜스와 정수장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녹조 확산에 따른 인근지역의 대처방안 사례를 살펴봤다.

배중범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올 여름은 갈수량·일사량 등이 아주 열악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오염원 단속, 보 상시개방과 더불어 지역별 취·정수장과 협조해 안전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하굿둑 개방은 장기적 로드맵을 통해 영산강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자동차·에너지·문화 '미래먹거리' 기반 확보

도시철도2호선 지연·인사잡음 등 시정 발목

광주시 민선 6기 3년은 광주 미래 먹거리를 위해 자동차·에너지·문화 등의 밀집과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윤 시장의 권위주의 탈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와 협업시스템 도입 등은 시정 핵심 키워드였다.

정통관료도 직접 정치인도 아닌, 의사이자 시민 사회 활동가의 초보시장이 보여 준 3년은 지방분권 시대에 시정이 나아가 희망과 비전을 보여 줬다는 게 중론이다.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책으로 채택돼 민선6기 최대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윤 시장은 3대 먹거리인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산업, 문화융합콘텐츠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핵심산업이 돼 광주의 산업지형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게재와 진상규명,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등은 역사적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다만 논란과 갈등이 적지 않았던 도시철도2호선, 어등산 개발 등 주요 정책의 추진력 부족과 미숙한 의사결정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은 여전히 흠으로 남고 있다.

특히 친인척을 5급 비서관에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인사잡음은 임기 내내 발목을 잡았다.

무엇보다 '시민시정'으로 시민들은 물론 구성원들에게 책임지고 결정하지 못한 애매한 스탠스가 시정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윤 시장은 "주요 결정과정이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남은 1년 후순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욱 진정성 있게 광주발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철 기자

활기·매력·온정 '초점' 일자리 창출 성과 '괄목'

에너지산업 부상...인구감소·청렴도 등 과제

민선 6기 3년간 전남도는 도정에 활기·매력·온정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맞춰 일자리 창출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787개 투자협약 기업 가운데 476곳이 공장 착공 등 투자를 실현해 1만6,000개 새 일자리를 만들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종합대상을 받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14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친 빛가람혁신도시는 200개 에너지 기업이 투자를 약속하면서 에너지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여수 경도 관광만권 경제자유구역 편입,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이 가시화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인증면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수산물 연간 생산액이 2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국비확보 기록을 해마다 갈아치우며 지역 숙원사업을 하나 둘 해결한 것도 활기

의 원천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KTX와 SRT 개통에 발맞춰 전남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관광객 4,278만명을 기록, '전남관광 5,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온정을 불어넣는 서민시책도 호평받았다. 신협 일수대출 금리인하, 생계형 빚 탕감, 100원 택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꿈 사다리 공부방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온갖 유인책에도 인구가 처음으로 19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고령화률 조류인플루엔자, 가뭄, 쌀값 하락으로 농촌의 시름은 깊어졌으며, 도민의 체감경기도 바닥을 쳤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014년 13위, 2015년 16위, 지난해 17위 등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정근산 기자



김갑섭 남전도지사 권한대행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손금주 국민의당 예결위원을 면담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가뭄대책사업 등 추경예산과 2018년 전남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모두 확보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혁신도시에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유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콘텐츠사업의 거점역할을 할 전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가 들어선다.

전남도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지역거점형 콘텐

츠 기업육성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한 공모에서 전북도와 함께 최종 관문을 통과, 각각 국비 48억원을 확보했다.

전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는 한전 앞 지식산업센터 2개 동을 임차해 다음달 말 개소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2년까지 186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관광·문화유산을 가상현실(VR) 콘텐츠와 결합할 방침이다.

/정근산 기자

5·18 사적지 잔해 옛 도청 복원 활용

화순 아적장 보관 건물잔해 기무부대 터로 옮겨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였던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의 건물잔해가 5·18사적지인 광주 서구 옛 505보안부대(기무부대) 터로 옮겨졌다.

적벽돌 등 옛 전남도청 건물잔해는 리모델링 공사 후 그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화순의 한 아적장에 보관해 왔다.

광주시는 22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화순 아적장에 보관 중이던 적벽돌 2,000여장, 천정 기둥 7조, 기둥 4개, 목재 5t 등 옛 전남도청 잔해를 인수해 광주 서구의 옛 505보안부대 터로 옮겼다.

잔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옛 도청 별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문화전당측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나온 건물잔해 중 일부를 문화전당 기념관 전시 콘텐츠와 5·18 구묘역 돌탑 쌓기 행사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기념관 전시 콘텐츠에는 벽돌 150장을, 5·18 구묘역 돌탑 쌓기 행사에는 벽돌 500장을 제사용했다. /조기철 기자

하지만 나머지 잔해들은 오랜 시간 아적장에 보관한 채 활용방안을 내놓지 않아 5·18사적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 문화전당과 관련협회에 착수한 광주시는 이들 건물잔해를 건네 받아 5·18사적지 제26호로 지정된 옛 505보안부대 터에 보관하기로 했다.

505보안부대는 1980년 5·18당시 건물 지하실에서 고문인 자행된 장소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이날 화순 아적장에서 옮겨 온 잔해들을 옛 부대 터 한쪽의 지붕이 있는 군용차량 주차공간으로 옮겼다.

또 잔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앞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옛 전남도청 복원 시 잘 활용돼 5·18역사성 확보 등 광주정신을 이어 가겠다"며 "옛 전남도청 복원팀에서 추진 중인 복원자료조사와 수집에도 탄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광고국 062) 720-1016, 1017
팩스 062) 720-1020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건강상담
(암 등 특히 많이 아프신 분)
010-3929-0278

사무실 임대
광주역전 (교원B/D 맞은편)
0 지하1층 ..... 241㎡
(창고, 무도학원, 사무실)
※ 관리비 없음.
일대 문의 010-5219-0295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만, 근조화환 3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Tal. (062) 233-9961 Fax. 672-9961

사고 좋은 물건
직매 H. 010-3605-5000
위치 확인후 전화요망
광양, ㅅ 근린상가
나주, ㅅ 상가주택
신안동, 해상빌라
전원, 주택토지